

‘금호타이어 화재’ 위기 대응 민관합동특별팀 가동

광주시·광산구·노동청·시의회 등 맞선
고용안정·경제회복·피해 지원 등 논의
羨 “회복 빠른 길은 새 공장 짓는 일”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경제 위기대응 민·관합동특별팀(TF)’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TF 회의는 지난달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TF 회의를 열어 참여 기관·단체와 함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관계 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산구, 광주시의회, 금호타이어,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화재 복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고용 및 경제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TF를 꾸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안전본부의 화재 경위 보고 ▲금호타이어 측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 ▲광주연구원의 화재 사고 경제적 손실 추정·대응 과제 ▲대기·수질·악취·폐기물 등 환경 분야 추진 사항과 대응 계획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자 고용 안정 방안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협력업체 경영 안정자금 지원 ▲급급생계·심리 지원 방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상황지원단 운영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등을 기관별로 보고·공유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금호타이어 노조·협력업체, 피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고용위기지역 지정 위한 협력 강화, 공장 철거 시 오염물질 비산에 의한 2차 피해가 없도록 당부 의견 등이 있었다.

광주시는 환경, 경제, 고용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TF 정례회의를 월 2회 실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금호타이어 화재는 시민 피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대응 민·관합동특별팀’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등 지역 경제·사회·생태환경 등 여러 분야에 복합적 위기를 남겼고 TF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노동자 고용 보장, 생태환경 점검, 주민 피해 보상·지원, 새 공장들

짓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TF의 노력이 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

라”며 “고용 보장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금호타이어 새 공장을 짓는 일이고 광주시는 새 공장을 짓는 일에 적극 협력·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 추가 모집

도내 15개 대학·출연기관서 17일까지

전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7월부터 운영하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기업)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발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2천400만원의 창업기술 사업화비를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1대1 멘토링과 경영·회계·법률·투자유치 등 분야별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내 15개 대학·출연기관 등의 창업·보육 공간을 중심으로 기술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IP) 인증,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예비창업자 또는 5년 이내 창업 기업인(2020년 1월1일 이후 창업) 중 18세부터 45세 이하 청년(1980년부터 2007년 출생자)이다.

15개 대학·출연기관 창업보육센터 창업시설에 입주하고 사업자(법인) 주소를 해당 창업시설에 신설·이전해야 한다. 전남도 거주자, 전업 예정자, 타시·도 거주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전남도 거주자와 전업 예정자, 도내 대학 대학생(석·박사 포함)은 선발 평가 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선발 규모는 총 150명(기업)으로 창업 분야별로 우주항공·바이오·AI·데이터·에너지 등의 지

역특화기술 100명, 농수산기술 30명, 문화·관광 분야 20명 등 미래 첨단분야 기술창업 중심으로 선발한다. (문의 전남도 벤처창업종합안내창구 1533-3330) /양시원 기자

광주시, 재일동포 기업 투자환경설명회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재)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5 광주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주최 ‘2025년 제1회 경영세미나’와 연계해 열렸으며 한일 전기그룹, 대한합성화학공업, 아비코전자 등 협회 소속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광주시 도시홍보영상 상영, 투자환경 프레젠테이션, 네트워킹 등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미래차 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과 투자 인센티브,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 등을 설명했다.

특히 AI 생태계, 미래차산업 역량, 국가AI데이터센터 및 팹리스 반도체 기업 유치 성과 등 광주의 핵심 경쟁력을 중점 홍보했다.

광주시는 설명회 참석 기업 중 투자에 관심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초청 팹투어’를 추진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담, MOU 체결 등 후속 투자유치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3조5천억 생산유발효과

도·용역보고회서 광양만권 경제성 확신

정부 건의 등 신속 추진...지정 총력전

전남도가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로봇(AI), 바이오, 수소차,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를 공급할 국가 전략거점으로서 필요성·경제성·타당성을 확인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용역 결과 산업단지 조성 시 약 3조5천17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1조2천884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4천1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순현재가치는 1천259억원, 내부수익률(IRR)은 488%, 비용편익비율(B/C)은 1.065로 국가사업으로서 추진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순천 해룡면과 광양읍 일원 약 306만㎡ 부지에 들어서면 지형이 평탄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개발 여건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근 광양만권 산업벨트와 석유화학·철강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면 기존 세풍·울촌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에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은 총 117개

사다. 유치 업종은 이차전지, 금속가공, 전기·기계·운송장비 등 67개 품목에 달하며 특수합금·고속복합소재 및 연구시설 등도 포함돼 첨단산업 집적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 건의, 국비 확보, 민간 투자유치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해 국가산단 지정용 목표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한 산업 인프라를 넘어 전남의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기술 전략화를 이끄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남형 국가산단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 노인일자리 발전 방향 모색

지원기관 간담회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서재팰리스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과 소문 간담회를 열어 노인일자리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황종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남지회장, 14개 시니어클럽 관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황종권 전남지회장은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량과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고 초기투자비 지원사업비를 증액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 지회장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600여명의 노인일자리 종사자가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노인일자리 종사자 한마당’ 신설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보건복지부 평가 및 공모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니어클럽 기관장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60세에 퇴직해도 청년 못지않은 능력을 가진 어르신이 많아지는 만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지역 특색에 맞는 어르신 역량을 잘 살릴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고정671 업무상과실지상

피고인 이정아

위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차상자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 5. 22.

판사 김용신

광주역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급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 의료시설, 쇼핑센터 등 무슨 업종이던 좋은 위치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만약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 | | |
|------|---|------|
| 외상대금 | 돈 | 빌려준돈 |
| 공사대금 | | 투자금 |
| 장비대금 | | 약정금 |
| 전세금 | | 임대료 |
| 부도어음 | | 구상금 |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더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